

4 Idiots,

Raonatti 11th India : Bombay YMCA

Ache Din Ache Waala hai.

: Better days are coming.

Content

1. 3월 일정

2. 월간활동

- BOMBAY YMCA Branches 방문
- Kamathipura Day Care Centre / 외부 환경 개선
- Saarthak play school / ORD Balwadi
- Hindi class
- Coaching to swim
- YMCA Youth at Risk

3. HOLI / Passion2014 / proctor day

4. 350 PPM

5. Story of Our MUMBAI life

6. Monthly photo

| 1. 3월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3/6 मुंबई 도착!	7	8
10	11	12	13 / 14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Kamathipura day care centre		15 Coaching to Swim Hindi Class Ymca for Youth at risk
BOMBAY YMCA branches 방문					
17 HOLI★	18 / 19 Coaching to Swim Hindi Class Kamathipura day care centre		20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Kamathipur a day care centre	21 / 22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Ymca for Youth at risk	
24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Kamathipur a day care centre	25 / 26 Coaching to Swim Hindi Class Kamathipura day care centre		27 / 28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Kamathipura day care centre		29 Hindi class PASSION 2014
31 Saarthak play school Hindi class Kamathipur a day care centre	4/1, 2, 3 ORD Balwadi Hindi class Kamathipura day care centre			4/4 Kamathipur a day care centre Kamathipur a 외부환경개선 활동	4/5 Hindi class Kamathipur a 외부환경개선 활동

| 2. 월간활동

★ BOMBAY YMCA Branches 방문 ★

뭄바이에 도착한 뒤, 각 BOMBAY YMCA Branch들을 방문하였다. 처음에 먼저 International House와 가까이 있는 수영장이 있는 Proctor YMCA 를 시작으로 student branch, ORD+Saarthak, Kamathipura, central branch, Bandra ymca, juhu Centre, Anderi(Boy's home) , ghatkoper branch, new Bombay branch 총 11개의 브랜치를 약 5일에 걸쳐 방문했고, 각 branch를 방문할 때 마다 기관장분이 환영해 주었다. 각 YMCA Branch마다 mumbai와 social work에 관한 각 각의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후에는 그 branch를 대표하는 활동이나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branch를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월간활동

★ Kamathipura Day Care Centre ★

Day Care Centre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날에는 아이들과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분위기를 보았다. 처음에 낯을 가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얘기하다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만들기”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고, 한국의 전통놀이인 칠교놀이, 지점토로 얼굴 만들기, 페트병 재활용해서 화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싶어 진행하였지만 거기까지는 의미전달을 하지 못하고 만드는데에만 의의를 두었다. 물론 만들면서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만들고 나서 자기의 작품에 애착을 가지고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행한 활동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2. 월간활동

★ Kamathipura 외부 환경개선 ★

이는 9기부터 언급되었던 문제로 Kamathipura 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에서 많은 쓰레기가 Kamathipura 주변에 투척되어 냄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위생 그리고 쓰레기 더미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조차 없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Kamathipura day care 활동을 시작할 때 좁은 흙과 쓰레기가 섞인 바닥이 공사중이었고 깨끗해져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날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더욱 더 많아졌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관해 얘기하던 중에 우리는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정 또한 들어보아야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각 집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다음 기수를 위한 정보수집과 최대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쌓는데 목표를 두었다. 방문 전에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통을 함께 나눠주기로 했지만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계획을 변경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사진을 찍고 이메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후에는 사진을 보내주었다. 비록 그들은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매우 친절했고, 많은 음식도 나눠주었다. 적극적인 사람부터 우리의 활동에 부정적인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2. 월간활동

★ Saarthak Play School / ORD Balwadi ★

처음에는 Saarthak play school을 진행하다가, 아이들의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남은 3~4일 정도는 ORD Balwadi 활동으로 대체 되었다.

① Saarthak Play School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려서 만들거나 구체적인 게임 등은 진행하지 못했다. “Good morning” “What is your name?” 같은 영어 챗트와 알파벳 발음 노래를 같이 불렀고, 준비해간 영어 스토리북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고, 한번은 풍선으로 게임을 준비했으나 아이들에게 룰을 설명하기 힘들어 그저 가지고 노는 정도에 그쳤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 있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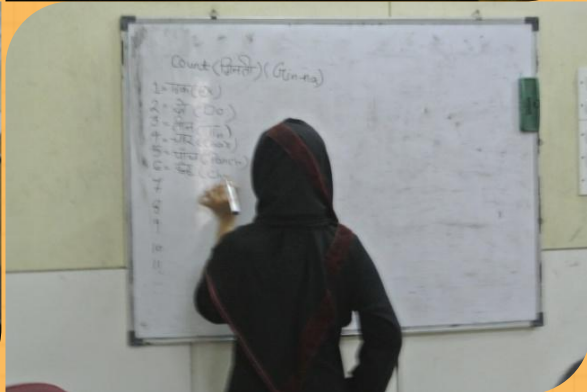
2. Out Reach Department Balwadi

saarthak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연령대가 높아보여서 영어챗트는 물론이고 신문지로 배, 모자 만들기를 진행했다. 거의 못 접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잘 접는 것보다 아이들이 신문지접기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영어챗트를 매일 진행할 수록 날마다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 월간활동

★ Hindi Class ★

처음에 힌디 수업을 받았을 때는 수업속도가 우리에게 너무 빠르고, 활동에서 쓸 수있는 힌디가 아닌 과일, 야채 등의 이름을 배워 수업받기에 약간 힘들었지만, 이후에 SABA한테 얘기해 수업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상의하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웠다. 그래도 힌디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웠지만 그만큼 신기하기도 했다. 힌디를 배우으로써 뭄바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배우면 배울수록 활동하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또래 선생님인 SABA와 힌디를 사용하며 얘기하면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2. 월간활동

★ Coaching to swim ★

Ashish와 Pari가 수영하는 법을 알아서 , Swimming class 제 안받았을 때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 팀이 처음으로 Swimming class를 맡게 되었다. 첫 시간에 Ashish와 Pari 는 메인 선생님 옆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수영했고, Anand 와 Pritie 는 다른 선생님께 수영을 배웠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함께 Handicap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주었다. Handicap Children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수영을 잘 하는 아이들 또한 가르칠 때도 있었다. 수심이 꽤 깊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에 목적을 두기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이들의 배우려는 자세와 수영이 힘들어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많이 배웠다.



2. 월간활동

★ YMCA Youth at Risk ★

이 프로그램은 ID Card도 없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부족해 쓰레기를 주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health, hygiene, safety and the lack of goal from youth 등을 찾아 발표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이다. 우리가 크게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아닌 YMCA Staff의 아래 진행하였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것이고, 단 4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그들과 교류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였다.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최대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려 노력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즐거웠기를 바란다.



3. HOLI Festival / Passion2014 / proctor day

① HOLI Festival

Paul, Jinson과 함께 어느 한 큰 집에서 여는 HOLI Festival에 초대받았다.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HOLI는 한해가 끝남을 축하하고 봄을 환영하기 위한 축제로, 남녀노소 계급 상관없이 서로 색 가루나 물, 꽃을 뿌리며 즐기는 축제다. 우리들도 아이들과 형형색색의 가루와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겼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의 많은 전통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인도의 다른 전통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3. HOLI Festival / Passion2014 / proctor day

② Passion 2014

우리의 코디네이터 Jinson이 기획한 Christian Song Competition 으로 그들의 노래로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경험했다.



③ proctor day

proctor day를 기회 삼아 우리가 준비한 춤을 처음 보여줄 수 있었고, 거기 계신 분들도 같이 즐겨주고 좋아해줘서 우리 또한 즐겁게 즐길 수 있었다.



| 4. 350 PPM

- Meatless Monday
- 개인 컵 사용
-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X)
- 티슈 사용 자제하기
- 에코백 이용 (Plastic bag 안받기)

매주 월요일마다 meatless를 규칙으로 정했지만 meatless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1~2번 잊어버리고 meatless를 지키지 못한 날도 있었다. 만약 월요일에 저녁약속이 있는 경우 유동적으로 meatless날짜를 바꾸기로 하고 meatless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 볼 예정이다. 개인 컵 사용하는 것과 계단을 이용하는것 은 국내훈련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익숙해졌고, 티슈사용에 있어서는 중간에 문제제기가 되어 활동 시작 후부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을 갈 때나 바깥을 나설 때는 되도록이면 에코백을 이용하였다.



| 5. Story of Our MUMBAI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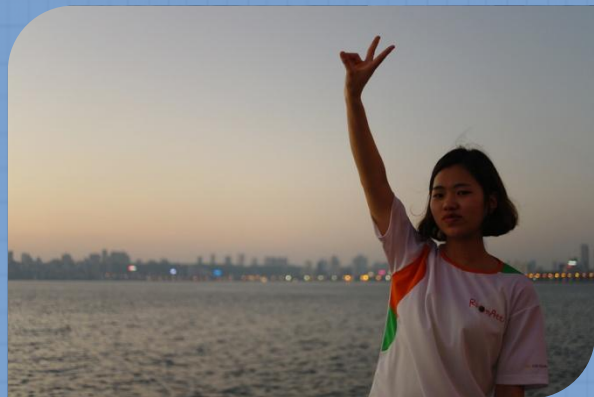
★ PRITIE (김예원) ★

길고도 짧았던 인도에서의 한 달이 지나갔다. 정들었던 이들과 이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스스로가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다. 거리의 빈민, 슬럼, 도로 위의 경적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장난 섞인 인사. 처음 보고 처음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이곳.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일상.

오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중 제대로 생각 할 시간을 가진 것도 해결 된 것도 없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다. 국내훈련 때 간사님께서 하신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항상 변해야지 하면서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의지 없는 몸뚱이.

이제 이곳에서의 한 달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그곳에서는 좀 더 변화 된 삶을 살아야겠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앞으로 남은 4달이 진짜 인생의 뜨거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Ache Din Ache Waala hai.



| 5. Story of Our MUMBAI life

★ ASHISH (김누리) ★

보통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들인 애정과 노력, 시간에 비례한다. 내가 그 관계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전달된다. 시간과 애정을 양분으로 관계는 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며 따라 점차 그 관계는 시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은 다행스럽게도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죽음은 휘발성이 아니다. 몸 속 깊이 남아 있으며 무겁고 진득하게 다시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는 비 휘발성의 죽음이다. 내가 들인 시간과 애정은 온전히 그 관계에 흔적으로 남아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나의 애정과 시간이 진심이었고 충분했다면, 조금의 시간과 애정이라는 양분을 준다면 다시 깨어나 커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곳 인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도에 와서 한국에서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다. 수 많은 일회성의 관계들, 쉽게 휘발되는 관계들 속에서 끈적끈적한 점성의, 결코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관계는 얼마나 있었고 내 시간을 쏟아 부었는지. 일회성의 관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았을 텐데, 단지 일회성이라고 치부하고 포기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는지.



| 5. Story of Our MUMBAI life

★ ASHISH (김누리) ★

나는 보통 특별한, 운명 같은 만남과 관계를 기대하고 바라며 지낸다. 하지만 처음부터 특별하거나 남다른 관계는 없다. 나의 장미꽃이, 내가 심은 해바라기가 남들에게는 길가에 있는 수 많은 꽃들 중 하나겠지만, 나에게만은 특별한 해바라기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인 시간과 애정 노력 때문일 것이다. 어딜 가든 나에게 기분 좋은 관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아직 한 달뿐이지만 가끔은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했었다. 앞으로도 마냥 행복하거나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처음부터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나에게만 나에게 다가오는 관계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해맑은 아이들을 통해서, 처음 보는 나의 안부를 묻는 많은 이들에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는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조금은 까다롭고 번거로울 수 있는 수고를 마다할 때에야 그는 결국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



| 5. Story of Our MUMBAI life

★ ANAND (정주영) ★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할 때였다. 일반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오히려 내가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수영을 하면서 자꾸 몸이 가라앉고 숨쉬기가 불편하여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여 보았는데, 아무래도 온몸에 긴장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한 채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물이라도 조금 들어가면 위협을 느껴 허우적거렸다.

긴장을 풀고 물에 몸을 맡기니 저절로 몸이 물에 떠올랐고, 마음을 편안히 먹으니, 물을 조금 먹어도, 코에 조금 물이 들어가도 여의치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

삶이라는 공간 속에서 역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보았다. 단지 흘러가는 삶 속에 나를 맡기고 한발씩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고, 예기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철저한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 허우적거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진정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는 지 모른 채, 그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아가지 못하고 온몸에 긴장을 가진 채 가라앉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곳 인도에서, 이제서야 삶이라는 바다 속에서 긴장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지우고 긴장을 푼 채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또 내 자신에게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5. Story of Our MUMBAI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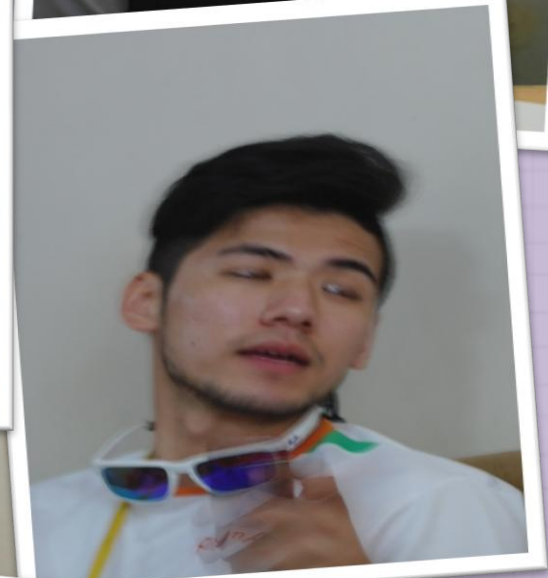
★ PARI (주다운) ★

또 다시 인도.
또 다른 목적.

오기 전에 생각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곳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친해지기로.. 한 번 인도와 인도사람들을 경험해봤던지라 가기 전 부터 지레 겁부터 먹은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한 달 생활해보니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관심과 사랑뿐이었다.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는. 처음에 전 기수들이 “아이들이 그림다, 보고싶다” 라고 항상 얘기했을 때는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야 알았다. 나는 이곳 뭍바이에 사는 아이들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미운 적도 많았지만 그 미워하는 순간 마저 나에게서 값진 추억으로 다가왔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지칠 때도 많았지만 내가 힘든만큼 아이들의 행복과 비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내훈련 때 아무런 지식도 없는 내가 뭍바이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고민했지만, 내 품에서 자고, 안기고, 웃고, 우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투성이었고, 무기력했던 내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한 달동안 진정으로 여기있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인사하고, 안부 묻고, 웃고, 악수하고 한국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타지인 뭍바이에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여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틀림없는 증거이다. 또 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오고 물론 헤어짐이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고 하지만 난 절대 내가 한달동안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6. Monthly Photo



6. Monthly Photo



6. Monthly Photo



THANK YOU FOR WATCHING 😊



TO BE CONTINUED..
